

A,군과 b 군은 초등학교 4 년부터 친구로서 친구를 넘어선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이다. 늘 학교와 일에 바쁜 A 는 친구 b 가 모처럼 찾아와 그의 차를 타고 함께 운동을 하고 GW 브리지를 건너던중 경찰이 불신검문을 요구하며 차를 세웠다. DWI 에 걸린것이다. 그날은 어쩐일인지 경찰이 약 20 대의 차를 운동장에 다 몰아넣고 한차씩 검문을 집중적으로 하는것이였다. 그렇게 자신이 탄차를 검문 받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운전석에있던 친구인 B 가 사색이 되어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경찰이 차를 뒤질것 같은데 실은 내가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며 실토를 하는것이였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것 같았다. A 는 이사실을 전혀 모르는채 차를 탄것 뿐인데다가 자신은 불체자 신분이기 때문인것이다. 당황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일을 당하게 할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였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고 차안에는 대마초 봉투가 3 백이나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순간이였다 B 는 경찰에게 자신의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차만 얻어 탄것 뿐이며 그 마약은 내것 이라며 이 친구는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그것은 재판정에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차를 압류하고 재판날짜를 주고 나서야 그 둘을 풀어주었다. 내가 아주 잘알고있던 불체자인 A 군은 곧바로 내게 전화를 했다.나는 너무나도 충격스런 이 소식에 그만 마음이 주저앉았다. 유난히 성실하고 착실히 사는 그에게 너는 불체자이니 이런류의 일이 있으면 안된다며 매사에 조심하라고 늘 조언을 해주었던 터라 더더욱 충격스러웠다. 나는 서둘러 그 다음날 둘을 만났다. 만나자마자 마약 소지자였던 B 는 너무나도 절망스런 얼굴표정으로 내앞에 앉더니 미안하다며 주체 할수없는 울음을 울먹이며 그 상황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댓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곤경에 빠뜨리게 되어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숨도 고르지 못할정도로 울먹이는 그를 보는 나는 그에 대해 원망스러웠던 내 마음이 허망해져버린 망망한 기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일정도의 울음을 섞은 그의 하소연은 다음과 같았다. 어릴때부터 단짝 친구인 둘은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불체자인 A 는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에 진학을 했고 성실하게 자신이 학비를 벌며 대학 을 다니고 있었다.

반면 b는 별로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에 다니며 가끔씩 대마초를 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3,4년이 지나면서 둘은 초등학교부터 친한 친구였지만 A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치면서 대학졸업반이 되었고 B는 여전히 비슷한 자리에 있는.. 그렇게 점점 차이가 나는 그런 친구가 되고 있었다. 항상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것같은 b군은 a군을 보며 마음이 불안해지고 때로는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마약의습관은 늘 여전했고 그것을 아는 a는 가끔 그 친구에게 마약을 끊기를 권유했지만 B는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별 문제점을 느끼지 않아 그충고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러던중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된것이였다. 이 기가막힌 상황에 처해서야 B는 자신이 뭘 어떻게 잘못했나가 뼈저리게 깨달아지게 된것이다. 그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대마초를 하는것이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그 미련함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그 가족을...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들을 보이지 않는 칼로 그 마음들을 후벼파고 말았다는것을 ... 그리고서야 비로소 이전 그마약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깨달았노라고...그 B군의 진실한 고백과 깨달음이 고마와 께안아주고 돌아오면서 나는 친구인 그들이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워 애꿎은 눈이 짓물르도록 울었다.